

또 만났네... 현 군수-전 군수 ‘리턴매치’ 예상

장성군수

내년 장성군수 선거는 김양수(63) 현 군수와 유두석(63) 전 군수 간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재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두 차례 대리전을 포함 ‘리턴매치’를 이어오고 있어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인 이 청 군수와 두 차례 군수자리를 놓고 맞붙었었고, 이들은 서로 1승 1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유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군수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당선됐었지만, 이듬해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어 곧바로 치러진 2007년 장성군수 재선거에서 유 전 군수의 부인 이 청 후보가 남편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무소속이었던 김양수 후보를 꺾고 남편에 이어 군수직을 차지하며 ‘부부군수’가 탄생했다.

대리전 포함 두차례 맞붙어

1승1패 기록... 지역정가 관심

김양수 후보는 당시 재선거에서 패한 뒤 ‘와신상담’ 끝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청 군수를 누르고 군수에 당선됐었다.

전남도 행정혁신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30년이 넘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양수 군수는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다.

재임기간 안정적인 군정운영과 지역자원 특화로 장성을 전국적인 명소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1년 9월부터 추진한 청렴 문화 체험교육이 전국에 입소문을 타면서 370여 회 동안 3만여 명이 참여해 ‘청렴 고장’으로의 이미지를 드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

다. 김 군수는 또 8년 동안 담보상태였던 나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했고, 지난해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농협 호남권물류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미래산업과 더불어 새로운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 부흥을 꾀하고 군민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행정경험과 차별화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장성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설움을 버리고 있는 유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그동안 지역에서 ‘와신상담’을 해왔

다. 국토교통부 간부공무원 출신인 유 전 군수는 민선 4기 ‘돈 버는 부자 농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었다.

하지만, 취임 16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제대로 된 군정을 펼쳐보이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유 전 군수의 낙마가 비리가 아닌 당직보유 논란이었던 만큼 지역 내 지지층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부부 군수’를 통해 다져온 세력도 아직까지는 견제할 것으로 알려져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와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유 전 군수는 짧은 재임기간 동안 국민임대아파트 1·2차 유치, 장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도시가스 도입,

■ 장성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민주당	무소속
이름(나이)	김양수(63)	유두석(63)
주요경력	· 장성군수 · 전남남도 행정혁신국장	· 옥산 오창고속도로 사장 · 전·장성군수

※ 후보는 가나다 순

독거노인 공동주택,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유 전 군수는 향후 장성 발전을 위해 상업과 관광중심의 중부권, 관광농업의 서부권, 첨단산업가 도시근교 농업의 남부권, 생태문화관광 중심의 북부권으로 권역별 발전 로드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전·현 군수, 도·군의원 등 잇단 출사표

곡성군수

지역에서 튼튼한 지지세를 갖췄다고 자평하는 전·현직 군수와 도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허남석(57) 현 군수의 재선 도전에 배병채(62) 전남도 교육위원과 유근기(50) 전남도의원, 조상래(55) 곡성군의원, 조형래(63) 전 곡성군수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 가운데 허 군수와 조 전 군수 간의 ‘리턴매치’가 관심사다.

허 군수는 재임기간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형성한 군정 공감대, 경영과 실질을 중시하는 상업행정, 연대와 보안으로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광역행정으로 ‘부군복민’(副君福民)을 위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허 군수는 민선 6기에는 곡성군 주요 산업인 농업 중흥과 문화관광산업 적극 추진을 통한 소득 창출, 지역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장수수당, 효행 장려금 지급,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천

마산 및 송정권역 등의 권역 단위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선 초대 군수를 지낸 조 전 군수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78표 차이로 재선의 고현석 전 군수를 꺾고 재기하는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는 허 군수에게 패배의 쓴맛을 봤다.

그는 민선 1기와 4기 군수를 지내

■ 곡성군수 출마예정자

정당	무소속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무소속
이름(나이)	배병채(64)	유근기(51)	조상래(56)	조형래(64)	허남석(58)
주요경력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 전·장성·구례 교육청 교육장	· 전남도의원(재선) · 중앙당 청조위원회 부위원장	· 곡성군의원 · 전·전남도의원	· 전·곡성군수(민선1·4기) · 전·곡성군 농민회장	· 곡성군수 · 전·곡성경찰서장

※ 후보는 가나다 순

산업을 가공·생산·유통의 6차 산업으로 키워 자립도를 높이고, 노인복지와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으뜸으로 하는 군을 만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유근기 도의원은 전 곡성 라이온스 클럽 회장과 제7대 도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과 주민들을 공략하며 차분하게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20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소통과 화합, 창의적 정책개발을 통해 희망찬 곡성의 미래를 펼쳐나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인복지문제와 도시·농촌 간 교육문제, 젊은이 일자리 창출, 관광상품 개

발, 이주민 및 장애인 복지 문제 등을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

전남도의원을 지내고 곡성군의원으로 체급을 한 단계 낮췄던 조상래 군의원도 전 한국청년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사회교과 친밀감을 무기로 지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

차별화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확대, 특화작물 발굴과 생산 및 가공, 판매를 체계화한 농업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등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이슈& 변수

‘국책사업 유치’ 놓고 기싸움 치열

무소속·安신당 돌풍 얼마나 불까

차기 장성군수 선거전에서 최대 관심사는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이다.

김 군수는 ‘지방행정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고, 유 전 군수는 ‘중앙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군수 선거전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선거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군수는 그동안 무엇보다 국비

와 도비 유치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유 전 군수는 민선 4기에 유치했던 대형 국책사업을 민선 5기에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고 김 군수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불거진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리’로 인한 장성군 부군수 등의 구속도 논쟁거리가 될 전

망이다.

선거전 변수는 장성군민의 정치성향이다.

그동안 장성이 무소속 돌풍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권의 상황변화에 따라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실제로 장성은 지방자치단체 도입 이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여섯 번의 군수 선거에서 세 차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었다.

이 때문에 장성군수 선거에도 ‘안철수 신당’ 바람의 강도가 선거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도 그동안 장성지역에 공을 들여온데다 민주당 후보인 김양수 군수의 당선 이후 바다민심을 잘 다져왔다는 점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이슈& 변수

문화관광, 농·임업 발전 구상 쟁점

현 군수 정치 행보따라 판도 요동

차기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곡성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안과 주요 산업인 농업 및 임업 발전 구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곡성군은 기존 1차산업과 함께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기차마을과 압록 유원지, 도립사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새로운 문화관광산업 기반 확충과 시설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다.

선거 최대 변수는 현역인 허남석 군수의 향후 정치 행보다. 무소속인 허 군수가 최근 민주당 입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판도가 크게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허 군수가 입당할 경우 민주당 경선은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허 군수가 민주당 입당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잦은 마찰을 빚어온 민주당 중심의 의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과의 통합을 하겠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다른 후보들은 굵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전이 본격화될 경우 반(反) 허 군수 연대가 이뤄질 지도 관심거리다. 조형래 전 군수와 조상래 군의원은 한 집안이어서 향후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 후보들이 연대해 허 군수의 측근을 둘러싼 잡음 문제 등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바로잡습니다=본보 13일자 5면 ‘6·4 지방선거 누가 뛰나’ 나주시장 기사 중 ‘홍석태 전 나주 부시장’은 ‘홍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의 오타(誤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융복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 룸9개, 4층 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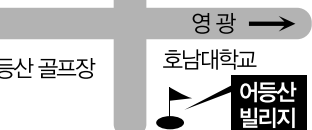
70% 분양완료!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 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저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할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 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